

김해시, ‘열관리·초안전센터’로 미래차 혁신기술 거점 도약

오는 20일 명동일반산단서 착공식 열관리센터, 부품개발·사업화 돕고 플랫폼 통해 기업협력 체계 강화 초안전센터, 새시 모듈 등 기술지원

김해시가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 2곳을 동시에 짓는다.

김해시는 오는 20일 한림면 명동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기술지원센터와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술지원센터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두 센터는 미래 자동차 기술 혁신단지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2026년 각각 준공된다. 지난 4월 문을 연 미래자동차 베티움센터와 함께 미래차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래자동차 기술 혁신단지는 총면적 2만 7850㎡, 총사업비 870억원 규모로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이다.

미래자동차 베티움센터, 열관리센



김해시 미래자동차 기술 혁신단지 전경.

/김해시

터, 초안전센터, 고중량물 이송자율이 동체 시험평가센터가 2027년까지 차례로 완공되면 지자체·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관리센터는 공사비 45억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1377㎡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5월 준공한다. 열관리 부품 개발과 사업화를 돕고, 플랫폼을 통해 대·중·소 기업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동반 성장을 이끈다.

미래차 핵심 기술인 열관리 시스템은 차량 냉난방 모듈, 배터리 온도를 조절하는 쿨링 모듈,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미래차의 배터리, 모터, 전력전자장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적절한 열관리가 없으면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열관리 시스템은 안전성 확보, 주행 효율 향상, 부품 성능 향상 등 미래차의 기술적 강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다.

초안전센터는 공사비 65억원, 지상

2층, 연면적 1490㎡ 규모로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시 모듈, 파워트레인, 통합제어 부품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 차량 개발은 실제 부품을 만들어 성능을 확인했지만, 초안전센터는 디지털 트윈 기반 HILS·VILS 기술을 활용한다.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검증으로 실차 기반의 다양한 가상 주행 시나리오를 구현해 물리적 시험과 비용,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박종환 경제국장은 “김해시의 자동차 부품 기업 수는 도내 1위지만 출하액 2위, 부가가치는 3위에 머물고 있다”며 “기술 혁신단지를 통해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미래차 부품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반려동물과 이색 가을 트래킹

영덕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가을 여행 프로그램으로 ‘제1회 영덕 멍멍 트래킹’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과 함께 자연 속을 걷고, 행동 교정 교육부터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 이벤트로 꾸며진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26일 영덕군 별파랑공원 일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트래킹 프로그램 ‘제1회 영덕 멍멍 트래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국 1400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해 영덕군이 추진하는 ‘블루로드 반려견 동반 트래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사천시가 지역 항공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연다.

사천시는 오는 22일 사천체육관에서 ‘2025년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사천시가 항공산업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 및 관련 기업 33개사와 구직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여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내일부터 ‘부산금융주간’ 행사

부산시는 오는 17~18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2025 부산금융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코스콤, 한국금융투자협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다. ▲26개 금융 전문 세미나 ▲금융 교육 ▲기업 존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전망과 금 현·선물 투자, 노후 준비와 연금 관리,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 전환에 대한 전망 등 평소 시민들이 깊이 있게 알기 어려운 금융 정보를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8개국·13개市 ‘공업축제’ 방문

울산시는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2025 울산공업축제’ 참가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울산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문 대표단은 ▲일본 하기사·니가타시·구마모토시·시모노세키시 ▲중국 창춘시·우시시 ▲미국 휴스턴시 ▲체코 모라비아실레지아주 ▲튀르키예 코자엘리시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칸호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등 8개국 13개 도시 106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총력 ‘포항~영덕 고속도로’ 경제 파급효과 기대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총회 간담회서 유치 전략 설명·협력 방안 논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도, 화순군과 함께 총력전에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운명을 바꿀 핵심 과제”라며 “당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

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대용량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이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가동이 멈추는 특성상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이미 핵융합 연구 기반과 부지 안전성, 산업 연계성이 두루 뛰어난 최적지로 인공태양 연구 기반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지질 안전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확보했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점해 추진 중이다. 또한 핵융합 관련 학계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

/나주(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오는 11월 개통 앞뒤

포항시는 오는 11월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동해안 광역경제권 조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이미 개통된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추진 중인 영일만 횡단대교(이하 영일만대교) 완공이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와 극대화될 전망이다.

총 연장 약 30.92k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에서 영덕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20분 이상 단축된다.

시는 이번 개통을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 속에서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포항~영덕 고속도로 전경.

등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울산~포항 고속도로와의 연계는 남부권 산업도시와 환동해 물류 거점인 포항을 직접 연결해 산업벨트를 확장시키며, 장기적으로 항만·철도·고속도로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완성해 국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경남도, ‘맘프’ 20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경남도가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맘프’의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창원 용지문화공원 일원에서 2025 맘프(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를 연다고 밝혔다.

‘20년의 동행, 다름을 잊고 다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의 문화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2005년 지역 행사로 출발한 맘프는 현재 매년 25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누적 방문객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

올해 주빈국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는 24일과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성산아트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마두금을 중심으로 몽골 국립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및 전통예술원의 협연이 펼쳐진다.

25일과 26일 이틀간 포정사 공원에서 몽골 나담축제를 테마로 한-몽 전통 씨름대회와 게르, 샤가이, 활쏘기 등 전통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 30분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모두합창단, 이송환밴드, 뮤지컬 배우 강홍석이 출연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대구마라톤대회’에 4.1만명 참가신청

접수 시작 21일 만에 조기 마감

대구시는 내년 2월 열리는 ‘2026대구마라톤대회’의 마스터즈 참가 접수에 총 4만1104명이 신청을 완료해 접수 시작해 21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10km 종목은 1만 5000여명이 접수 개시 당일 마감되고 건강달리기 5000여명은 접수 3일 만에 마감됐으며, 풀코스 2만여명도 21일 만에 마감되면서 전년보다 60일 앞당겨 조기 마감 기록을 세웠다.

종목별 접수 인원은 ▲풀코스 2만5명 ▲10km 1만5648명 ▲건강달리기 5451명이며,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1만7901명, 타지역 2만1956명, 해외 124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 대구마라톤대회’.

해외 참가자 수는 지난해 315명에서 약 4배나 증가해 대구마라톤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48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1만2836명, 20대 5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